

격 려 사

오늘 민족문화수호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의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법주사 주지 노현스님과 종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법주사는 신라시대에 처음 법등을 밝혀 1400여 년 동안 면면히 이어오는 동안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함은 물론 절 안팎의 수많은 유물과

**유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법주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불교의
전통사찰들은 대개 그 역사가 짧게는
수 백년부터 길게는 1천 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이 땅에 존재하며
민족의 역사와 숨결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후
1700여년이 지난 바로 지금, 우리
불교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내부로는 불교의
자존을 외부에 의존한 채 살아온**

관행으로 승가의 위기와 존엄을 스스로 훼손시켜 왔으며, 외부로는 1700년 민족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덩치에 비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원효스님 처럼 스님들이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터전 속에서 함께 호흡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하락하였고, 우리들
스스로 결집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불교를 홀대하고
쉽게 생각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문제로 우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만 명의 불자가 운집하여
종교편향 문제를 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계의 외침에도 불구
하고 우리 사회의 종교편향 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그 양상이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개신교인들의 사찰 땅밟기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목사와 장로 등 개신교인들이 조계사에 난입해 불교를 비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밟기는 국내를 넘어 미얀마 등 불교 국가에까지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6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우리 종단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시대에는 백련결사와 지눌의 정혜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근세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봉암사결사로 한국 승가의 혁신과 수행풍토 확립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봉암사 결사당시 스님들께서는 행동지침으로 공주규약을 만들어 실천하였습니다. 이 공주규약에는 “일상에 필요한 물품은 스스로 해결 한다는 목표 아래 물 길고, 나무 하고, 밭일 하고, 탁발하는 등 어떠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든지 “발우는 와 발우 이외의 사용을 금하며, 매일

두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는 내용 등 열 아홉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봉암사 결사 공주규약과 같이 우리의 자성과 쇄신 결사 또한 5대 결사 내용별로 사찰의 행동지침, 불자의 행동지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수행결사의 행동지침으로 ‘1불자 1수행 생활화하기’라든지 생명결사의 행동지침으로 ‘일주일에 이틀 이상 육식 금지하기’하더라든지, 나눔결사의 행동지침으로 ‘1인 또는 1사찰 1복지 시설 정기 후원하기’라든지, 평화결사의

행동지침으로 ‘북녘동포 돕기 모금함 설치하기’ 등이 실천지침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지침은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야말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전하는 길입니다.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종교적 가르침과 원력, 국민들의 비판과 격려 속에 한국불교가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지난날의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한국불교가 변화와 쇄신하는 모습으로
나설 때만이 한국불교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고 국민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사부대중 모두가 정진하고, 발원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